

혼마루 궁전

혼마루 궁전은 에도시대(1603~1867)에 황족의 분가를 위해 건설된 궁전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쇼군의 거처였던 교토의 니노마루 궁전과는 형태와 설계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붕의 등근 선과 장식의 단순성을 통해 혼마루 궁전의 절제된 우아함이 드러납니다. 이는 쇼군의 궁전이 가진 위엄과 화려함과는 대비됩니다. 내부의 장지문과 칸막이에는 꽃이 잔뜩 실린 옷칠 수레와 같은 고전적인 궁정 모티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 칸막이에는 은색이나 황토색으로 구름과 학, 그리고 기타 섬세한 무늬를 묘사한 목판화 벽지가 붙어 있습니다.

혼마루 궁전의 건물 네 채는 1894년 메이지 천황(1852~1912)의 명으로 현재 위치로 이축되었는데, 원래는 가쓰라노미야 가문 저택의 일부였습니다. 가쓰라노미야 가문은 직계에서 후계자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 황위를 세습할 4대 세습 친왕 가문 중 하나입니다. 메이지 천황의 고모인 가쓰라노미야 스미코 내친왕(1829~1881)은 이 가문의 마지막 당주였으며, 스미코 내친왕은 후계자 없이 사망했습니다.

혼마루 궁전은 황족의 일상, 그 중에서도 특히 미적 취향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